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흥식(서울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장주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야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정책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 발달 환경과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대해 수년간 추적조사한 종단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전국 초1, 초4, 중1 청소년 및 보호자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수년간 추적조사하여 종단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연구를 시작하였다.

3차년도인 올해 2012년에는 전년도인 2011년의 2차 조사결과를 통계데이터로 구축하였고, 리서치브리프, 사업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관련학계를 대상으로 콜로키움,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최종표본으로 구축된 청소년 및 보호자들에 대해 3차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년간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에 참여를 허락해주신 청소년 및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1차년도 조사과정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전국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신 교수님들, 현장전문가분들, 대학원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이 연구가 무사히 수행, 완료되어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논문작성과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적응에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2차년도 데이터의 중1패널(중학교 2학년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학교적응,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위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방임을 적게 경험할수록,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알수록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함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였다.

셋째,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살펴본 결과 가족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방임을 경험한 경우가 적을수록, 학대를 경험한 경험이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지역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사회자본,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 학교적응, 청소년, HLM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적응에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 지역사회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학교적응,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 고찰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2차년도 데이터 중1패널 데이터 분석 및 제시

3. 주요결과

- 첫째,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2.837(최소값 1.3, 최대값 4.0)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방임경험은 1.871(최소값 1.0, 최대값 4.0), 학대 경험은 1.843(최소값 1.0, 최대값 4.0)으로 방임을 경험한 정도가 약간 높았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1주일 평균 2.186일이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평균 3.0(최소값 1.0, 최대값 4.0)으로 자녀와 친한 친구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삶의 만족도는 2.97(최소값 1, 최대값 4)이었다. 공동체의식은 2.717(최소값 1, 최대값 4)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또한 2.747(최소값 1, 최대값 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개인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방임적 양육방식, 학대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부의 근로여부, 성별이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방임을 적게 경험할수록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잘 알수록,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간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적응 전체변량 중 6.1%가 지역사회간 차이로 나머지 93.9%가 개인간 차이로 설명되었다. 학교적응의 차이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다 지역사회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적응은 지역사회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학교적응의 차이를 개인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방임을 적게 경험할수록,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알수록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함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족소득,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의 성별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15.09%였다.
-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지역사회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의 가족소득이 높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버지가 취업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지는 않았다.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70.23%였다.
-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살펴본 결과 가족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방임을 경험한 경우가 적을수록, 학대를 경험한 경험이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방임을 경험한 경우에 학교적응에 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소득, 아버지의 직업여부, 청소년의 성별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동체의식 수준은 여전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가족소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아버지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사회 사회자본만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 데 반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족 사회자본의 통제변인으로 부의 학력이 여전히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사회의 효과는 개인가정 아버지의 학력수준 효과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43.58%였다.

4.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책방안 마련
- 아버지·어머니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의 확대, 홍보
-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전개
-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 물질자본 지원 위주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지원으로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학교적응	9
2. 사회자본	10
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모형	19
2. 연구문제	20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21
4. 변인의 측정	21
5.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25
IV. 결과	27
1. 연구대상 일반특성	29
2. 주요변인자료	30
3. 상관관계	31
4. 연구모형분석	34
V. 결론 및 논의	45
1. 요약 및 결론	47
2. 논의	50

VI. 정책제언	53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55
2. 정책제언	56
참고문헌	63
ABSTRACT	71

표 목차

〈표 Ⅲ-1〉 변인의 측정	24
〈표 Ⅳ-1〉 일반적 특성	29
〈표 Ⅳ-2〉 주요변인자료	30
〈표 Ⅳ-3〉 개인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31
〈표 Ⅳ-4〉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33
〈표 Ⅳ-5〉 학교적응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35
〈표 Ⅳ-6〉 학교적응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개인수준 측정변인 통제후) ..	36
〈표 Ⅳ-7〉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	38
〈표 Ⅳ-8〉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	40
〈표 Ⅳ-9〉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	42
〈표 Ⅵ-1〉 중·장기로드맵	56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모형	19
---------------------	----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청소년에게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된 생활의 장이다. 청소년은 학교의 공식적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인지적 문제해결기술, 대인관계기술, 규칙 준수 방법 등을 배운다. 또한 학교를 통해 소질과 직업능력을 탐색하며 스스로가 속한 지역, 사회의 문화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학습한다. 학교는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현재 환경일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인기의 발달적 성취, 직업적·사회적 적응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중요한 미래지향 환경이다.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화의 매개체이다(이경님, 2008). 이전까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일은 대부분 학교 구성원의 몫이라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학교폭력,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자살, 또래와의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행동,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이제 학교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가족,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학교적응은 상당 기간 동안 사회과학자들의 주된 관심 연구주제 중 하나였다. 학교적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양의 국내·외 연구(김미정·정규석, 2010; 김현숙, 2011; 이경님, 2008; 정태성, 2011; Wickrama & Noh, 2010)들이 축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학교사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증거기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환경을 강조하는 Bronfenbrenner(1989)의 이론은 오랜 기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하는 유용한 학문적 틀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시체계, 중범위 체계, 거시체계에 걸친 다양한 영향 변인이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규명되어 왔다. 이렇게 검증된 영향 요인들은 학교적응을 위한 미시체계, 중범위 체계, 거시체계 차원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개입점과 우선기준을 제시하였다.

생태체계관점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이며 전통적 사회화의 장인 가족과 더불어 특히 최근 들어 지역사회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발달을 위해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집중하는 학자들은 환경이 개인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자 자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자원으로써의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는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이며 특히 사회자본은 물적·경제적 측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제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Warren, 2001; 강중수,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변인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자본의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사회자본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Kawachi, Subramanian & Kim, 2008; Wu, Palinkas & He, 2011; Parcel, Dufur & Zito, 2010). 청소년 발달과 가장 밀접하게 사회자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Coleman은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실질적 결정체라고까지 주장한다(김미정·정규석, 2010에서 재인용).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단일한 합의점을 찾기란 어렵지만(Kawachi et al., 2004) 사회자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구조적 측면의 사회자본이며, 두 번째는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이다. 조직참여, 네트워크, 자원 등은 구조적 측면의 사회자본, 신뢰, 호혜성, 규범 등은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 개념이다(Harpham, Grant, & Thomas, 2002). 서구의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자본의 효용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최근의 사회자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고 흐르는 사회적 자원'으로 개념화된다고 하면서 구조적 측면의 사회자본을 지칭하고 있다(Bourdieu, 1990; Coleman, 1990; Lin, 2001).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개인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자원'으로도 개념화되며 사회적 응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utnam, 1993). 중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조사한 Yip 등(2007)의 사례에서도 구조적 측면의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자본을 개인수준과 맥락 수준에서 개념화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Yip et al., 2007).

연구자는 이러한 점들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1차 사회제도인 가족과 최근에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 사회자본은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인화 하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선행연구(백학영, 2007)에서 사용한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상의 군·구 단위를 지역사회 단위로 삼고 각 지역사회별 전반적 사회자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변인에 관한 개인수준의 측정치를 지역별 평균으로 환산하여 지역사회 사회자본 변인값으로 활용하였다¹⁾. 또한 사회자본을 가족과 맥락수준의 지역사회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실시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양육방식(방입, 학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를 가족 사회자본 변인으로 가족소득, 부의 학력,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 성별, 청소년 전학여부를 개인수준측정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평균, 지역사회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평균을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지역사회 가족소득평균, 지역사회 부의 학력평균,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을 지역사회수준측정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의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93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0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였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예를 들면 가구소득의 경우, 각 개인이 응답한 가구소득은 가족 사회자본의 변인으로 활용되고 이 값의 군·구 지역사회 별 가구소득 평균은 지역사회 사회자본 변인으로 활용된다. 소득을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가족소득과 지역사회별 가구소득 평균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가족내 물질자본 수준과 지역사회 물질자본 수준을 각각 파악하고 이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
2. 사회자본
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

우선 학교적응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7)은 학교적응을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으로 특히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편하게 느끼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라고 하였다(정태성, 2011에서 재인용). 정규석(2004)과 박수란(2006)은 학교적응이 ‘학생이 학교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만족하는 상태로 학업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학교라는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은 적극적 과정을 통해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한다(김종언, 2009). 성선진(2010)은 학교적응을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교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적응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정태성, 2011). 정태성(2011)은 학교적응을 학업적응, 사회적응, 일반적응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하위 요소로 학업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교사특성, 학교규칙준수, 또래관계, 학교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적극적 참여 등을 들고 있다. 권영복(2002)과 문은식·김충희(2002)는 학업성취 뿐 아니라 교사관계, 또래관계, 규칙준수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이경님, 200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 또한 학교적응을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으로 살펴보고 있어 학교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최근 연구경향과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을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크게 학생 개인 특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와 학생과 관련된 환경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양분된다(김현정, 2009).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하나 일부 개인수준의 통제변인을 제외하고는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학업중단에 대한 영향력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후자와 연구의 맥을 함께 한다. 최근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사회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정의는 다양한 접근과 관점을 강조한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초반에 생성된 개념이며 주로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 이탈리아 정치학자 Putnam, 미국 사회학자 Coleman에 의해 개념정의나 이론개발이 이루어졌다(김미정·정규석, 2010). Bourdieu는 사회자본을 경제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사회자원의 측면에서 Coleman은 공유된 가치와 신뢰의 측면에서 Putnam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의 측면에서 주로 이해한다. 사회자본에 관한 Bourdieu, Putnam, Coleman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던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던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인 Bourdieu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Bourdieu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이에 반해, 미국 사회학계에서 '합리적 선택이론' 진영을 이끈 Coleman은 사회자본이론을 활발히 발전시켰다(김미정·정규석, 2010). 그는 사회자본이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사회적 성과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관계

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그것이 없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Coleman은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본을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자본을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나누고 있다. 가정내 사회자본은 가족배경, 부모-자녀와의 관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가정외 사회자본은 학교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Coleman, 1988; 김현숙, 2011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Putnam은 사회자본을 '조정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 Putnam은 지역사회 복지수준의 향상은 그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의 사회자본을 갖고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최종혁 외, 2010).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자본의 정의 중 청소년발달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Coleman(2000)의 정의에 따라 사회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 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자원'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본인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자본 중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Coleman이 지적한 가정내 사회자본 중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에, 가정외 사회자본 중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주목한다. 사회자본을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분류하는 시도는 백병부·김경근(2007), 김미정·정규석(2010)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가족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Coleman(1988)은 '가정내 사회자본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창출되며,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대화, 부모의 존재 여부 및 시간의 투입'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자녀의 적응에 가족 사회자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현숙, 2011에서 재인용). Wu, Palinkas와 He(2011)는 가족 사회자본을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관심에 반영되는 부모-자녀간의 유대'로 정의하였다. Mistry 등(2012)은 가정내 사회자본의 유형으로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투자'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양육방식인 '심리적 자원'을 예로 들었다. 가족내 사회자본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양육방식(방입, 학대)(Mistry et al., 2012),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Mistry et al., 2012),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관심(이경남, 2008),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Mistry et al., 2012)를 들고 있다.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거주 부모 간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구조의 긴밀성, 부모와 지역사회 내 제도들 간의 관계 등을 일컬으며 지역사회 구조의 안정성 및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이정선, 2001; 김미정·정규석, 2010에서 재인용). 지역사회 사회자본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과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 규범, 신뢰, 지역사회소속감, 시민참여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자들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제시한 변인으로는 공동체의식(Coleman, 1988; Putnam, 1993), 지역사회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경님, 2008; Coleman, 1988; Putnam, 1993; Elliott et al., 2006) 등이 있다.

3.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사회자본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변인으로 선정하고 가족사회자본과 학교적응,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1) 가족사회자본과 학교적응

Wu, Palinkas와 He(2011)는 가족 사회자본이 학교중단가능성(Croninger & Lee, 2001)에 부적 영향을, 학업성취(Coleman, 1988; White & Glick, 2002), 사회적 감정적 적응(Hagan, MacMillan & Wheateon, 1996)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 사회자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은 다양한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김미정·정규석, 2010; 신윤자, 2005; 윤유덕, 2010; 장덕희, 2001; 정태성, 2011). 방임, 학대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비효과적인 양육행동은 많은 위험요소와 적은 심리 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해 비행, 학교부적응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양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된다(강유진, 2010; 김미정·정규석, 2010; 김현숙, 2011; 신윤자, 2005; Mistry et al., 2012).

Mistry 등(2012)은 가족 사회자본 중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기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머니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업을 바꾸거나 일하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버지의 양육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직업간 역할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혹은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이경님(2008)은 부모들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교활동에 관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 활동 등에 잘 알고 지지적 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이 누구와 어디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청소년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보일 때 청소년은 바람직한 행동과 적응을 보이게 된다.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로 대표되는 보호자의 심리적 자원도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하게 지적되는 변인이다(Parcel, Dufur & Zito, 2010). 이러한 자원에는 부모의 정신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 양육요구를 다루는데 필요한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우울은 보다 비호의적이고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관련연구들은 아버지의 우울 또한 양육과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Mistry et al., 2012).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에 관한 Minstry 등(2012)의 정의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자본 변인을 부모-자녀관계(양육방식), 시간투자(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심리적 자원(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으로 살펴보았다.

(2)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가족과 보호자는 가장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방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Mistry et al., 2012).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우울감(Stevenson, 1998),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감소(Beyer, Bates, Pettit & Dodge, 2003), 더 나은 건강관련 삶의 질(Drukker, Kaplan, Feron & Van Os, 2003), 사회적 수행능력(Rankin & Quane, 2002)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발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효능감은 비공식적 사회구조를 건립하고 더 광범위한 범위의 상호 신뢰와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이다(Miller, Pollack & Williams, 2011; Mistry et al., 2012). 공동체적 효능감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연계의 역할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제 기제의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제는 타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Leventhal & Brooks-Gunn, 2003). Mistry 등(2012)은 양육방식이

자녀의 적응에 가장 기본적인 기제인 것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효능감 또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선(2005)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감, 공고한 유대관계가 학교적응과 관련한 사회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웃환경과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는데 김기형(2006)은 집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이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공동체적 효능감(공동체 의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통제변인

Coleman(1990)은 자본의 유형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물적자본은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과 같이 실체화된 자본’을, 인적 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자본’을 말한다.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함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원을 형성할 수 있으며 Becker(1993)는 자녀의 학업·경제적 성공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김현숙, 2011에서 재인용). 인적자본은 부모가 그들의 직업기회와 관련하여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포함한다(Mistry et al., 2012). 인적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구분되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인간체 내에 축적되어 지는 산물이다(김현숙, 2011). 교육수준은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되는 인적자본 유형 중 하나이다. 다양한 이론적 모형은 부모의 교육과 자녀의 성과간의 관련성을 묘사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보호자의 경우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자녀를 위해 강화된 자원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높은 교육수준은 학습에 대한 강조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의 프록시가 될 수 있다(Mistry et al., 2012).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그들의 코호트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발달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Arneshensal & Sucoff, 1996; Brooks-Gunn et al., 1993; Entwisle, 2007; Wickrama & Bryant, 2003; Wickrama & Noh, 201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 지역사회 수준의 물질·인적자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측정 통제변인을 가족의 물질자본인 가족소득(정미영·문혁준, 2007; Domina, 2005)과 인적자본인 부의 학력(방하남·김기현, 2002), 부의 직업여부(김미정·정규석, 2010; 이정님, 2008; 장상수, 2008; Bradley & Corwyn, 2002; Domina, 2005)로 설정하였다. 지역사회수준 측정 통제변인으로는 지역의 물질자본(지역사회소득 평균)과 인적자본(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 부의 직업여부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의 성별, 전학여부(Pettit & McLanahan, 2003)를 통제변인에 포함시켰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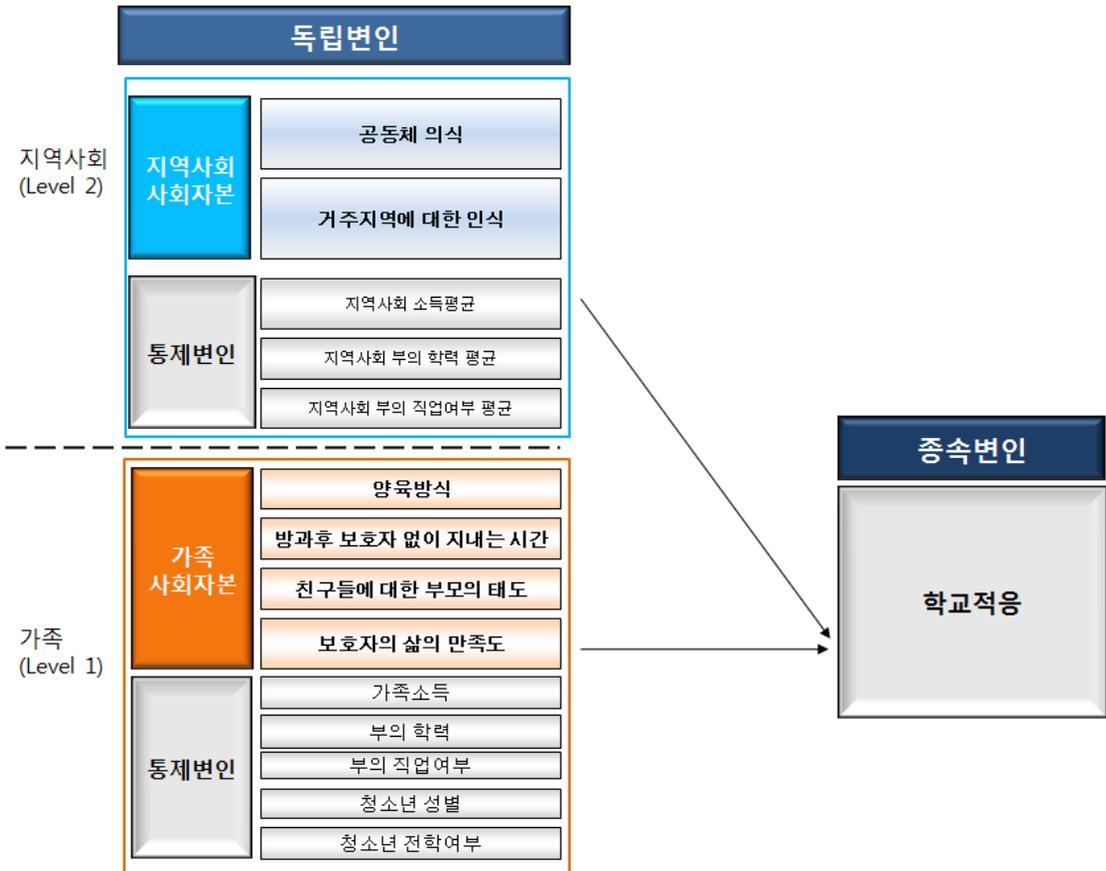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4. 변인의 측정
5.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가족 사회자본(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4]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지역사회 사회자본(공동체의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가족수준, 지역사회수준 분석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초1, 초4, 중1 3개 중다패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실태 및 변화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형태로 구성 되었으며 학생의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대상은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보호자 13,200명이며(각 학년별로 학생-보호자 2,200쌍) 표본 추출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졌다. 각 패널집단 별로 시도별, 도시규모별로 할당된 표본학교들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 현재 2차년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2차년도로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만을 횡단분석하였다.

4.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가족 사회자본(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사회자본(공동체의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가족수준 통제변인인 가족소득, 부의 학력,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 성별, 청소년 전학여부를 지역사회수준 통제변인인 지역사회 소득평균, 지역사회 부의 학력평균,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평균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표 IV-5>’(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 제시된 각 변인의 측정척도이다.

1) 학교적응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인 쪽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재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2) 양육방식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방임·학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방임 4 문항, 학대 4문항으로 측정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를 사용하였다. 방임, 학대에 대해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방임, 학대를 각각 재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3)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봉주 외, 2009)을 수정·보완하여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에 대해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로 측정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를 각각 0, 1.5, 3.5, 7로 재부호화하여 일주일 중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평균 일수로 사용하였다.

4)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2011)이 작성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항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다, 대부분 알고 계신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 전혀 모르고 계신다 4점 리커트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로 측정된 것을 보호자의 친한 친구에 대한 관심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5)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귀하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매우 만족한다-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척도(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를 긍정적 문항이 점수가 높도록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6) 공동체의식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연구(권혜원, 2004)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4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을 역으로 재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7)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ADD Health의 문항을 변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을 긍정적인 방향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재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8) 통제변인

개인수준 측정 통제변인으로 가족소득은 세후 연소득(만원), 부의 학력은 중졸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학원졸=5, 부의 직업여부는 일을 하고 있다=1, 일을 하고 있지 않다=0, 청소년 성별은 남자=1, 여자=0, 청소년 전학여부는 있다=1, 없다=0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사회수준 측정 통제변인은 지역사회 소득평균, 지역사회 부의 학력평균,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이며 시군구별 가족소득 평균(세후연소득(만원)), 부의 학력평균, 직업여부 평균을 산출하였다(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에서 재인용).

〈표 III-1〉에 문항번호와 문항처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표 III-1 번인의 측정

구분	변인	문항번호	응답	비고	
종속변인	학 교 적 응	학생용 문15)①-②①	① 매우 그렇다-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⑥을 제외하고 역으로 재부호화후 합산하여 문항수(20)로 나눔	
		학생용 문21)①-④	① 매우 그렇다-④ 전혀 그렇지 않다		
가족 (Level 1) 독립변인	양육 방식	학생용 문21)⑤-⑧	① 매우 그렇다-④ 전혀 그렇지 않다	합산하여 문항수(4)로 나눔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²⁾	① 거의 없다, ② 1-2일, ③ 3-4일, ④ 거의 매일		
	가족 사회 자본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³⁾	학생용 문 22)	① 모두 알고 계신다, ②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③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 ④ 전혀 모르고 계신다	역으로 재부호화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보호자용 문 14)	① 매우 만족한다-④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통제 변인	가족소득	보호자용 문 11)	연소득 세후 _____ 만원	- - ②→① 으로 재부호화 ②→① 으로 재부호화 ②→① 으로 재부호화
		부의 학력	보호자용 문8_2_1)	① 중졸이하-⑤ 대학원졸	
		부의 직업여부	보호자용 문 8_3_1)	① 일을 하고 있다, ②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 성별	1차 학생용 문2)	① 남자, ② 여자	
	지역사회 (Level 2) 독립변인	청소년 전학여부	학생용 문13)	① 있다 ② 없다	역으로 재부호화후 합산하여 문항수(4)로 나눔 ③을 제외하고 역으로 재부호화후 합산하여 문항수(6)으로 나눔
		공동체의식	학생용 문 25) ①-④	① 매우 그렇다-④ 전혀 그렇지 않다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학생용 문 24) ①-⑥	① 매우 그렇다-④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사회 가족소득평균		보호자용 문 11)	시군구별 세후 연소득 평균(단위:만원)		
지역사회 부의 학력평균		보호자용 문 8_2_1)	시군구별 부의 학력 평균(① 중졸이하-⑤ 대학원졸)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		보호자용 문 8_3_1)	시군구별 직업여부 평균		

* 출처: 이경상·백해정·이종원·김지영(2011).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일주일 중 평균 일수로 산출
- 3) 보호자의 친한 친구에 대한 관심정도로 산출
- 4) 시군구별 가족소득, 부의 학력, 직업여부 평균을 산출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비교, 학력수준, 고용률 수준 파악

5.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변인자료로 학교적응,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변인간 상관관계분석과 지역사회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은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위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회귀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들 간의 집단 내 상관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료 내에 위계적 구조가 존재할 경우 즉, 개인이 집단 내에 있으면서 많은 집단들이 함께 표집된 경우에는 개인자료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 사이에는 더 강한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여러 지역사회내에 개인수준의 가족에 대한 자료가 내포된 것으로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동일한 지역사회요인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내 개인들이 다른 지역의 개인들보다 더 강한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의 다층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층모형은 각 집단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집되었다고 전제하는데 본 연구의 집단은 지역사회로 그 분포가 다양한 대도시, 중소도시, 시·군·구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무작위 표집으로 가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위계적 구조 자료 분석을 위해 기초모형(Null Model), 중간모형(Mean Model) 분석, 연구모형(Full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초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의 최소 모형에 해당하는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Model)로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의 전체 변량을 개인수준과 지역사회수준 변량으로 분할하고 집단 내 상관계수(ICC)⁵⁾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를 통해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5) 우선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위계선형모형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 class correlation)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집단내 상관계수가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는 실상 통상최소자승법(OLS)를 통해서도 타당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사회자본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설명 변량을 산출하기 위해 집단 내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중간모형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우선 개인수준 변인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수준 변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인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에 절편 및 기울기 계수가 지역사회에 따라 무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 가족 사회자본 변인의 설명 변량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수준에 해당하는 변인만을 투입한 후 기초모형과의 변량 추정치 비교를 통해 국가수준 변인의 설명 변량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 독립변인과 지역사회 수준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최종 연구모형으로 절편 결과모형(Intercept as Outcome Model)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수준 변인과 지역사회수준 변인의 순수 변량을 산출하였다.

제 4 장

결 과

1. 연구대상 일반특성
2. 주요변인자료
3. 상관관계
4. 연구모형분석

제 4 장 결 과

1. 연구대상 일반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여자	1,128(49.5)	근로여부 -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3(1.6)
	남자	1,152(50.5)		일을 하고 있다	2,017(98.4)
	합계	2,280(100.0)		합계	2,050(100.0)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어머니	1,833(82.6)	형제자매 유무	있다	2,017(90.9)
	아버지	335(15.1)		없다	202(9.1)
	(외) 할머니	33(1.5)		합계	2,219(100.0)
	(외) 할아버지	7(.3)		다문화가 정여부	다문화 가정이다
	형제/자매	4(.2)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2,198(99.1)
	친인척	6(.3)	합계		2,219(100.0)
		비혈연	1(.0)	전학경험 유무	없다
	합계	2,219(100.0)	있다		36(1.6)
	중졸 이하	66(3.2)	합계		2,280(100.0)
교육수준 -부	고졸	831(40.4)	연간가구 소득	평균(표준편차)	4,514.34(2481.001)
	전문대 졸	201(9.8)		최소값-최대값	0-30000
	대졸	852(41.4)			
	대학원 졸	91(4.4)			
	모름/무응답	15(.7)			
	합계	2,056(100.0)			

청소년의 49.5%가 여자, 50.5%가 남자였으며 보호자 설문지 응답자는 82.6%가 어머니, 15.1%가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40.4%였다. 아버지의 98.4%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90.9%가 형제 또는 자매가 있었다. 0.9%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었으며 1.6%가 최근 1년 내에 전학한 경험이 있었다. 연간가구소득 평균값은 4,514,34만원이었다.

2. 주요변인자료

본 절에서는 주요변인인 학교적응, 양육방식(방임, 학대), 가족 사회자본(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사회자본(공동체의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교적응은 평균 2.837이며, 양육방식-방임은 1.871, 양육방식-학대는 1.843 이었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186일이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3.0으로 대부분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2.97이며 공동체의식은 2.717,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은 2.747이었다.

표 IV-2 주요변인자료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적응	2,279	1.3	4.0	2.837	.410
양육방식-방임	2,278	1.0	4.0	1.871	.591
양육방식-학대	2,278	1.0	4.0	1.843	.717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일/주)	2,220	.0	7.0	2.186	2.888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2,279	1	4	3.00	.706
보호자 삶의 만족도	2,219	1	4	2.97	.484
공동체의식	2,278	1.0	4.0	2.717	.599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2,279	1.0	4.0	2.747	.540

3.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개인수준측정 변인간 상관관계와 지역사회수준측정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개인수준 측정변인 상관관계

개인수준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개인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구분	학교적응	양육방식-방임	양육방식-학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 삶의만족도	연간가구소득(만원)	교육수준-부	근로여부-부	성별	전학경험유무
학교적응	1										
양육방식-방임	-.312**	1									
양육방식-학대	-.077**	.091**	1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047*	.033	.006	1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179**	-.271**	-.081**	-.042*	1						
보호자 삶의만족도	.081**	-.094**	-.051*	-.106**	.038**	1					
연간가구소득(만원)	.118**	-.103**	-.024	-.057**	.061**	.239**	1				
교육수준-부	.125**	-.076*	-.037	-.079**	.038**	.152**	.373**	1			
근로여부-부	.026	-.028	-.022	-.005	.003	.143**	.167**	.110**	1		
성별(1=남자, 0=여자)	-.046*	.030*	.180**	.024	-.183**	-.036	-.021	.027	-.019	1	
전학경험유무(1=있음, 0=없음)	-.009	.029	.014	-.034	.000	-.007	-.036	-.029	-.017	-.022	1

* p<.05, **p<.01, ***p<.001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육방식-방임, 양육방식-학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임, 학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성별은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 학대가 늘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늘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잘 알수록,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연간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양육방식-방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양육방식-학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나 학대와 방임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방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방식-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를 모르는 경우 학대가 많이 일어나며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여성 보다 남성의 경우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잘 모를수록,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부의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부의 근로여부로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연간가구소득은 부의 교육수준, 부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의 교육수준은 부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을 가지는 경우 연간가구소득이 높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빈번히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학교적응이나 다른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전학경험유무를 제외하고 변인을 분석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2)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 상관관계

다음 <표 IV-4>에서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체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연간가구소득, 부의 학력이었다. 즉, 연간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부의 학력이 높은 지역에서 역시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 없었으며 연간 가구소득은 부의 학력과 높은 통계적 상관성을 나타내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부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 .80이상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변인을 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V-4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구분	공동체의식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연간 가구소득	부의 학력	부의 직업
공동체의식	1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137	1			
연간가구소득(만원)	.264*	-.011	1		
부의 학력	.390***	-.125	.617***	1	
부의 직업여부	.107	-.008	.215*	.092	1

* p<.05, **p<.01, ***p<.001

4. 연구모형분석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초모형은 1수준 모형(지역사회 내 모형)과 2수준 모형(지역사회 간 모형)으로 구분되며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하여 통합 모형을 얻을 수 있다⁶⁾.

1) 기초모형

다음은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1수준 모형(지역사회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학교적응}_{ij} &= \beta_{0j} + r_{ij} \\ r_{ij} &\sim N(0, \sigma^2) \end{aligned}$$

2수준 모형(지역사회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u_{0j} &\sim N(0, \tau_{00}) \end{aligned}$$

6) 다층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인의 척도는 크게 예측변수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특히 원자료를 편차점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예측변인의 원점을 변수분포의 중심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인 중심점 교정법(centering)이 중요한 척도전환 방법으로 활용된다(Raudenbush & Bryk, 2001). 중심점 교정법은 다층모형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HLM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층모형에서 연구자가 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와 같은 2수준 다층모형의 경우 중심점 교정은 1수준 예측변인에 대한 교정과 2수준 예측변인에 대한 교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층모형에서 예측변인의 척도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예측변인의 원자료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grand mean centering), 각 집단의 평균을 원점으로 교정하는 방법(group mean centering)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0 값이 실제적 의미를 가질 경우 원자료(uncentered)를 사용한다. 또한 예측변인이 성별과 같은 가변수일때도 절편계수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중심점 교정을 한다. 1수준 독립변인은 일반적으로 집단평균 중심점 교정(group mean centering)을 2수준 독립변인은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grand mean centering)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겠다.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의 통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학교적응}_{ij} &= \gamma_{00} + u_{0j} + r_{ij} \\ u_{0j} &\sim N(0, \tau_{00}), r_{ij} \sim N(0, \sigma^2), \end{aligned}$$

기초모형 분석은 학교적응의 전체 변량을 개인수준과 지역사회수준 변량으로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수준과 지역사회수준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최소 모형에 해당한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평균은 2,840로 기초 통계로 산출된 평균인 2,837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동일하였다 ($t=194.055, p<0.001$).

표 IV-5 학교적응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_{00})	2,840	0.014	194.055***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times 2$
집단간 변량(τ_{00})	0.101	0.010	221.010***
집단내 변량(σ^2)	0.397	0.158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61		

* $p<0.05$, ** $p<0.01$, *** $p<0.001$

* 집단 내 상관계수(ICC)= 집단간 변량(τ_{00})/(집단간 변량(τ_{00}) + 집단내 변량(σ^2))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 및 지역사회수준 간 차이를 반영하는 변량의 양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수준의 변량은 0.010, 개인수준의 변량은 0.158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는 0.061로 학교적응의 전체 변량 중 6.1%가 지역사회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이며 나머지 93.9%는 개인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비율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변량 비율을 볼 때, 학교적응의 차이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다는 지역사회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사회 내 개인들이 지닌 학교적응이 같다는 가설에 대한 χ^2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학교적응은 지역사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과 함께 학교적응의 차이가 개인수준 측정변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측정 변인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기초모형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집단간 변량은 개인수준측정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이기에 지역사회수준 측정 변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측정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집단간 변량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측정 변인에 해당하는 가족소득, 부의 학력,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 성별을 모두 통제한 후 학교적응의 지역사회 수준 변량은 0.009, 개인수준 변량은 0.155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058로 전체 변량 중 지역사회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은 5.8%이며 학교적응에 관한 지역사회간 차이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201.114$, $p<0.001$).

표 IV-6 학교적응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개인수준 측정변인 통제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_{00})	2.832	0.097	29.012***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x^2
집단간 변량(τ_{00})	0.098	0.009	201.114***
집단내 변량(σ^2)	0.394	0.155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58		

* $p<0.05$, ** $p<0.01$, *** $p<0.001$

* 집단 내 상관계수(ICC)= 집단간 변량(τ_{00})/(집단 간 변량(τ_{00}) + 집단 내 변량(σ^2))

2) 중간모형1

본 절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인 가족 사회자본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은 1수준 모형(지역사회 내 모형)에만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지역사회 간 모형)에는 투입하지 않은 다층분석 모형이다.

다음은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1수준모형(지역사회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학교적응}_{ij} = & \beta_{0j} + \beta_{1j} * (\text{청소년 성별}_{ij}) + \beta_{2j} * (\text{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_{ij}) + \beta_{3j} * (\text{부의} \\ & \text{학력}_{ij}) + \beta_{4j} * (\text{부의 직업여부}_{ij}) + \beta_{5j} * (\text{가족소득}_{ij}) + \beta_{6j} * (\text{보호자의 삶의 만족도}_{ij}) \\ & + \beta_{7j} * (\text{양육방식 방임}_{ij}) + \beta_{8j} * (\text{양육방식 학대}_{ij}) + \beta_{9j} * (\text{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 & \text{시간}_{ij}) + r_{ij} \end{aligned}$$

$$r_{ij} \sim N(0, \sigma^2)$$

2수준모형(지역사회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간결화,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간 기울기 차이의 주된 관심이 아닌 통제변인들의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u_{0j} &\sim N(0, \tau_{00}) \\ \beta_{1j} &= \gamma_{10} \\ \beta_{2j} &= \gamma_{20} + u_{2j} \\ \beta_{3j} &= \gamma_{30} \\ \beta_{4j} &= \gamma_{40} \\ \beta_{5j} &= \gamma_{50} \\ \beta_{6j} &= \gamma_{60} + u_{6j} \\ \beta_{7j} &= \gamma_{70} + u_{7j} \\ \beta_{8j} &= \gamma_{80} + u_{8j} \\ \beta_{9j} &= \gamma_{90} + u_{9j} & u_{0j} &\sim N(0, \tau_{99}) \end{aligned}$$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_{00})	2.820	0.0719	39.173***
가족 사회자본			
양육방식-방임	-0.191	0.016	-11.734***
양육방식-학대	-0.028	0.0132	-2.183*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0.003	0.0036	-0.887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0.042	0.0155	2.754**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0.000	0.0232	-0.024
통제변인			
가족소득	0.000	0.000	1.749
부의 학력	0.019	0.009	2.112*
부의 직업여부	0.008	0.070	0.120
청소년 성별	-0.008	0.019	-0.414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집단간 변량(τ_{00})	0.101	0.010	130.757***
집단내 변량(σ^2)	0.366	0.134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2)	
투입 전 집단 내 변량	0.158	15.09	
투입 후 집단 내 변량	0.134		

* $p < .05$, ** $p < .01$, *** $p < .001$

* 주: 모형설명량(R^2) = (투입 전 변량 - 투입 후 변량) / 투입 전 변량 \times 100

고정효과 분석 결과 가족 사회자본 중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육방식-방임($t = -11.734, p < .001$), 양육방식-학대($t = -2.183, p < .05$),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t = 2.754, p < .01$)는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가족소득,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 성별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의 학력($t = 2.112, p < .05$)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잘 알고 있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높게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0102로 무선효과 모수인 τ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chi^2 = 130.757, p < .001$) 개인수준 측정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효과는 지역사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의 집단 내 변량은 개인수준 측정 변인 투입전인 0.158에서 투입 후 0.134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수준 측정 변인의 설명량(R^2)은 1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중간모형2

본 절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인 지역사회 사회자본 변량 설명을 위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은 1수준 모형(지역사회 내 모형)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2수준 모형(지역사회간 모형)에만 변인을 투입하였다.

다음은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1수준모형(지역사회 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학교적응}_{ij} &= \beta_{0j} + r_{ij} \\ r_{ij} &\sim N(0, \sigma^2) \end{aligned}$$

2수준모형(지역사회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공동체의식}_j) + \gamma_{02} * (\text{거주지역에 대한 인식}_j) + \gamma_{03} * (\text{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_j) + \gamma_{04} * (\text{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_j) + u_{0j}$$

$$u_{0j} \sim N(0, \tau_{00})$$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의 통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학교적응}_{ij} = \gamma_{00} + \gamma_{01} * \text{공동체의식} + \gamma_{02} * \text{거주지역에 대한 인식}_j + \gamma_{03} * \text{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_j + \gamma_{04} * \text{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_j + u_{0j} + r_{ij}$$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중간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_{00})	2.797	0.068	40.565***
지역사회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0.445	0.082	5.436***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0.057	0.071	0.798
통제변인			
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	0.000	0.000	0.800
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	0.057	0.028	2.018*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	-0.737	0.423	1.743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집단간 변량(τ_{00})	0.055	0.003	114.620*
집단내 변량(σ^2)	0.395	0.156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 ²)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10	70.23%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03		

* $p < .05$, ** $p < .01$, *** $p < .001$

* 주: 모형설명량(R²) = (투입 전 변량 - 투입 후 변량) / 투입 전 변량 $\times 100$

고정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사회자본 중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동체 의식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436$, $p < .001$). 지역사회수준 측정 통제변인 중 가족소득 평균과 부의 직업여부 평균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의 학력 평균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8$, $p < .05$). 즉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사회일수록 아버지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0.003으로 무선효과 모수인 τ_{00}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타났는데($\chi^2=114.620$, $p < .05$).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지역사회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의 집단 간 변량은 지역사회 측정변인 투입전 0.010에서 투입후 0.003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특성 변인의 설명량(R²)은 70.23%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겠다.

1수준 모형(지역사회내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학교적응}_{ij} = \beta_{0j} + \beta_{1j}^*(\text{청소년 성별}_{ij}) + \beta_{2j}^*(\text{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_{ij}) + \beta_{3j}^*(\text{부의 학력}_{ij}) + \beta_{4j}^*(\text{부의 직업여부}_{ij}) + \beta_{5j}^*(\text{가족소득}_{ij}) + \beta_{6j}^*(\text{보호자의 삶의 만족도}_{ij}) + \beta_{7j}^*(\text{양육방식 방입}_{ij}) + \beta_{8j}^*(\text{양육방식 학대}_{ij}) + \beta_{9j}^*(\text{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_{ij}) + r_{ij}$$

$$r_{ij} \sim N(0, \sigma^2)$$

2수준 모형(지역사회 간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간결성과 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집단간 기울기 차이의 주된 관심이 아닌 변인들의 회귀계수 오차는 0으로 고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공동체의식}_j) + \gamma_{02}^*(\text{거주지역에 대한 인식}_j) + \gamma_{03}^*(\text{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_j) + \gamma_{04}^*(\text{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_j) + \gamma_{05}^*(\text{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_j) + u_{0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 u_{2j}$$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beta_{6j} = \gamma_{60} + u_{6j}$$

$$\beta_{7j} = \gamma_{70} + u_{7j}$$

$$\beta_{8j} = \gamma_{80} + u_{8j}$$

$$\beta_{9j} = \gamma_{90} + u_{9j}$$

$$u_{0j} \sim N(0, \tau_{00})$$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동시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확장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절편(γ_{00})	2.786	0.110	25.236***
가족 사회자본			
양육방식-방임	-0.193	0.016	-12.006***
양육방식-학대	-0.028	0.013	-2.159*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0.002	0.003	-0.823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0.043	0.015	2.797**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0.004	0.022	0.206
통제변인			
가족소득	0.000	0.000	0.778
부의 학력	0.021	0.009	2.364*
부의 직업여부	0.018	0.070	0.257
청소년 성별	0.002	0.019	0.126
절편(γ_{00})			
지역사회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0.455	0.083	5.433***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0.037	0.072	0.515
통제변인			
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	0.000	0.000	0.568
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	0.057	0.029	1.966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	-0.765	0.456	-1.680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집단간 변량(τ_{00})	0.076	0.005	105.665***
집단내 변량(σ^2)	0.367	0.134	
무선효과	변량	모형설명량(R^2)	
투입 전 집단 간 변량	0.010	43.58%	
투입 후 집단 간 변량	0.005		

* $p < .05$, ** $p < .01$, *** $p < .001$

* 주: 모형설명량(R^2) = (투입 전 변량 - 투입 후 변량) / 투입 전 변량 $\times 100$

분석결과 가족 사회자본 중 양육방식-방입, 양육방식-학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사회자본 중 공동체 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별도로 살펴보았을 때 가족 사회자본 중 양육방식-방입, 양육방식-학대,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의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이들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인인 부의 학력도 여전히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경우 지역사회 사회자본만을 별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학력수준이 높은 지역인 것 보다 자신의 가족내 아버지 학력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등은 학교적응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수준 소득과 지역사회 가족소득 평균 또한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본의 세 가지 요소인 물적자본, 인적자원, 사회자본 중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이 물적자본에 비해 학교 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간 변량은 0.005로 무선효과 모수인 τ^2 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chi^2=105.665, p<.001$)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지역사회 측정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도 학교적응의 효과는 지역사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의 집단 간 변량은 변인 투입전 0.010에서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지역사회 측정변인 투입후 0.005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수준 특성변인과 지역사회 특성 변인의 설명량(R^2)은 4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결론
2. 논의

제 5 장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적응에 가족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가족 사회자본 변인으로 양육방식(방입, 학대),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가족 소득 부의 학력,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 성별, 청소년 전학여부는 개인수준 측정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평균, 지역사회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평균을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가족소득평균, 지역사회 부의 학력 평균, 지역사회 부의 직업여부 평균은 지역사회수준 측정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2차년도 데이터의 중1패널(중학교 2학년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교적응, 사회자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한 주요사항과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leman(2000)은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인적자본, 물질자본, 사회자본’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자본을 가정내 사회자본과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나누고 있다. 가정내 사회자본은 가족배경, 부모-자녀관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가정외 사회자본은 학교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소득으로 대표되는 물질자본과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여 사회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자본, 물질자본의 영향을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가정내 사회자본으로 가족 사회자본, 가정외 사회자본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연구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사회자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특히 아시아권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보다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은 사회자원을 자원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 깊으며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수준 변인과 맥락수준 변인의 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다층분석을 실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 또한 가족 사회자본을 개인수준 측정단위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지역사회수준 측정단위로 보고 위계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위계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내포된 변인들을 동일 수준에서 검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 또한 개인수준 통제변인과 지역사회수준 통제변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통제변인을 개인수준, 지역사회수준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물적자원, 인적자원의 개인수준, 지역사회수준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기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군·구로 하였다.

넷째, 사회자본을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변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찾기 힘들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변인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변인 중 상당수가 학교적응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위계 선형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변인 선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단, 가족 사회자본에 비해 지역사회 사회자본 변인수가 작고 내용도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여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위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2.837(최소값 1.3, 최대값 4.0)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방입경험은 1.871(최소값 1.0, 최대값 4.0), 학대 경험은 1.843(최소값 1.0, 최대값 4.0)으로 방입을 경험한 정도가 약간 높았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1주일 평균 2.186일이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평균 3.00(최소값 1.0, 최대값 4.0)으로 부모는 자녀와 친한 친구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삶의 만족도는 2.97(최소값 1, 최대값 4)이다. 공동체의식은 2.717(최소값 1, 최대값 4)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또한 2.747(최소값 1, 최대값 4)로 비슷하였다.

둘째, 개인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방입적 양육방식, 학대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보호자 삶의 만족도, 연간가구소득, 부의 교육수준,

부의 근로여부, 성별이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방임을 적게 경험할수록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많이 알수록,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간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간가구소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지역의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적응 전체변량 중 6.1%가 지역사회간 차이로 나머지 93.9%가 개인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비율로 학교적응의 차이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다는 지역사회 내 개인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적응은 지역사회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학교적응의 차이를 개인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설명될 필요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섯째,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방임을 적게 경험할수록,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알수록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함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족소득, 부의 직업여부, 청소년의 성별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15.09%였다.

여섯째, 학교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지역사회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의 가족소득이 높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버지가 취업한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지는 않았다.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70.23%였다.

일곱째,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살펴본 결과 가족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방임을 경험한 경우가 적을수록, 학대를 경험한 경험이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방임을 경험한 경우에 학교적응에 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소득, 아버지의 직업여부, 청소년의 성별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수준은 여전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가족소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아버지의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사회 사회자본만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 데 반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족 사회자본의 통제변인으로 부의 학력이 여전히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지역의 효과는 개인가정 아버지의 학력수준 효과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개인수준 측정변인과 지역사회수준 측정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량은 43.58%였다.

2. 논의

위 분석 결과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흥미로운 논의를 가능케 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연구결과는 가족 사회자본의 역할이 지역사회자본의 역할보다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을 통해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다층적 구조로 살펴보는 타당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회자본은 여전히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비해 강력한 청소년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됨이 분석 결과 검증되었다.

둘째,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중 특히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함이 분석결과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소득이나 직업지위로 대표되는 물질자본은 본 연구의 분석과정 전반에서 가족 사회자본 수준, 지역사회 사회자본 수준 모두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아버지가 실업상태일 때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난한 지역에 살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청소년의 부적응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교육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 뿐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지역사회 아버지 교육수준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이 청소년에게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물질자본보다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하겠다. 즉, 가족이 빈곤하거나 빈곤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가족, 지역사회로부터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빈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1주일 평균 2.186일을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맞벌이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정 밖에서 일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결과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만 해도 부모와 방과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 가정 어머니의 역할이 오랜 시간 청소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됨이 분석결과 드러났다. 반면에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정 여성이라고 해도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또래 친구와 긍정적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방과후 집에 있기보다는 학원 등에서 또래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부모가 이 시기의 청소년자녀의 교우관계에 관심과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학대가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방임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사실이었다. 부모의 일시적인 폭력이나 폭언 등 보다 지속적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부모의 무관심과 양육행동 부재가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오히려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태도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의 소득이나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이 학교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돈이나 선물 등의 물적자원 제공보다 애정적, 감정적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발생시키거나 당할 수 있는 위험, 문제행동 가능성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이 공동의 감독, 감시 역할을 함께 하며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양육의 공백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동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에 사는 것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보호요인이나 긍정적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에게 부자동네,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은 동네에 사는 것보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지원을 하는 동네에 사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물질자본보다 인적자본, 인적자본보다 사회자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섯째,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방임-학대 등의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을 통해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이 확인되었으며 세부지원에 대한 실증적 방안이 도출되었다.

제 6 장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제 6 장 정 책 제 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아동·청소년 학대·방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관련 위기 개입체계는 주로 아동·청소년학대가 일어난 후 개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어린 연령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부모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유형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는 아이의 양육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이다. 성장, 발전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을 우리 모두 자녀로 보고 함께 키우려는 노력과 의식전환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일반인들의 의식은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서비스의 대부분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물적자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 물적자본 뿐 아니라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중요함의 강조되었다.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자원 인적자본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서비스 지원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 하여 다음에서 정책제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중·장기로드맵을 다음 <표 6-1>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VI-1 중·장기로드맵

추진과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책방안 마련					
- 기존 아동·청소년보호지원시설 업무영역에 아동방임관련 예방 발굴 업무 추가	→	→	→	→	→
- 국가차원의 지원사실 홍보 확대				→	→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공동 아동·청소년방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	→
- 전국부모양육실태조사 실시	→		→		→
□ 아버지·어머니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의 확대,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 확대 보급		→			
- 여성가족부의 관련예산 일부지원				→	→
-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의 부모교육활성화 방안모색		→	→	→	→
- 생애주기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부모교육매뉴얼 개발·무상보급	→				→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전개					
-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대상 시상	→				
-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TV 공익광고 기획·송신	→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방안 연구 발주, 정책방안 도출	→		→		
□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빈곤아동·청소년에서 일반 아동·청소년으로 물적자본지원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지원으로					
-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				
-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인적자본, 사회자본 지원목록 및 지원방식 매뉴얼 개발		→	→	→	→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				
- 아동·청소년복지지원관련 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운영	→				

각각의 추진과제에 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책방안 마련

(1) 기존 아동·청소년보호지원시설 업무영역에 아동방임 관련 예방 발굴 업무 추가

아동·청소년학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신고전화 등을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예방, 지원, 개입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반해 아동·청소년 방임에 대한 개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학대에 비해 방임은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가족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시급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영향력이 장기화, 심화될 수 있다. 연구 결과 방임적 양육방식은 학대적 양육방식보다 학교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학대는 물론 방임에 대해서도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보호지원시설 기존 업무에 아동·청소년방임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방임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논의를 수렴하여 아동·청소년방임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학대에 비해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지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2) 국가차원의 지원사실 홍보 확대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처는 2010년 기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며 이들이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의 수는 파악된 것만 대략 160여 개에 달한다(서정아·조홍식, 2010).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상인 아동·청소년, 가족은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TV, 라디오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하는 방안, 아동·청소년이 자주 활용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사이트에 배너 등을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학교, 학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 등에 아동·청소년·가족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을 소개하는 강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가족관련 서비스지원기관 연락처, 위치, 주요사업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역, 관련기관, 관청, 학교 등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자치부 공동 아동 · 청소년방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 · 청소년방임은 아동, 청소년, 가족 모두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발견, 예방,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 가족 · 학교 · 지역사회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실질적 협력 없이 아동 · 청소년방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의 부처별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대상 및 서비스 중복, 개입기준 및 개입방향의 혼선,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 현장 · 학계 전문가, 아동 · 청소년 · 가족대표로 이루어진 아동 · 청소년방임대책위원단을 구성하고 아동 · 청소년방임에 대한 합의된 이해와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4) 전국부모양육실태조사 실시

아동 · 청소년방임은 아동 · 청소년학대에 비해 발견은 물론 실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 청소년방임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 · 청소년방임의 개입지점과 개입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대표성 있는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전국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조사에 구체적 부모양육실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가족실태조사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보다 부부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아동 · 청소년 입장에서 본 방임, 학대에 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가족실태조사에 아동 · 청소년이 응답한 부모양육실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전국 규모의 부모양육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아버지·어머니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의 확대, 홍보

(1)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관련예산 일부지원

부모역할에 대해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 중 친구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양육방식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도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1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서정아·조홍식, 2010) 다양한 생애주기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기관을 모집하는 방안, 부모들이 많이 있는 직장, 관공서 등으로 방문교육을 하는 방안,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중·장기, 단기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관련 부처의 예산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의 부모교육활성화 방안 모색

더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기관 및 시설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학교, 동사무소·구청, 학교 등이 가능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생애주기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부모교육매뉴얼 개발·무상보급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는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인식부족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부모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주기에 따라 다양한 개인·가족차원의 변화가 있으므로 한 두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생애주기의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가족 생애주기별로 표준화된 부모교육매뉴얼을 쉽고 재미있게 개발하여 직접 각 가정에 무상보급하고 누구나 쉽게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인구주택총조사 등과 같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기회에 무상보급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전개

(1)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대상 시상 및 TV 공익 광고 기획·송신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적응을 위한 새로운 개입점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개인, 가족,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함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개인, 가족, 교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사회가 이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면 청소년은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체의식이란 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처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제적, 인적 성공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체의식의 강조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하여 이를 위해 국가와 대중매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대상 시상이나 TV 공익광고 기획·송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단초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방안 연구 발주, 정책방안 도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 국가 내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사회의 문제점과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단기,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자본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동체의식 함양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1)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은 개인의 경제적,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물적자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물적자본은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는 경우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로 대표되는 가족 사회자본, 공동체의식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자본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비해 형성을 위한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 국가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물적자본 위주의 아동·청소년복지지원을 할 때에 비해 보다 유의미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인적자본, 사회자본 지원목록 및 지원방식 매뉴얼 개발

물적자본에 비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은 다소 개념이 모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지원을 실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현장, 학계, 정책 전문가 등이 모여 국가차원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강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목록 및 지원방식을 매뉴얼화하여 다양한 실천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개인이 다양한 환경 속에 존재함을 고려하여 개인차원, 가족차원, 학교차원, 지역사회차원, 국가차원 등 다각적 차원에서 인적자본, 사회자본 지원목록, 지원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및 관련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운영

또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전국규모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특정 부처의 시각에 내용이 한정되지 않도록 조사내용 구성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처 간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기존에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해당부처 정책추진체계의 강점 혹은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본, 사회자본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배분하고, 지원방향, 업무협조 및 업무분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유진 (2010).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323-339.
- 강종수 (2012). 중소도시 지역사회자본이 복지 자원개발에 미치는 효과 -기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239-262.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김기형 (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요인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정규석 (2010).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사회자본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지역 거주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9, 37-59.
- 김종언 (2009). **교육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숙 (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김현정 (2009). **저소득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과 관련변인**.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8(4), 193-222.
- 백병부, 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논총**, 18, 101-129.
- 백학영 (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정아·조홍식(2010).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선진 (2010). **청소년의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덕 (2010).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남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정선(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격차 개선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131.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 요인이 청소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미영 ·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태성 (2011). *교육복지정책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종혁, 이연, 이은희, 안태숙 (2010). 지역사회복지실천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지표 개발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4, 23-51.
- Beyer, J. M., Bates, J. E., Pettit, G. S., & Dodge, K. A. (2003). Neighborhood structure, parenting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youths' externalizing behaviors: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 35-53.
- Bourdieu, P. (1990). *Sociology in question*. Cambridge: Polity Press.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Vol. 6).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200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in Lesser, E(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 Croninger, R. G., & Lee, V. E. (2001).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high school: Benefits to at-risk students of teachers' support and guidance. *Teachers college Record*, 103(4), 548–581.
- Domina, R. (2005). Leveling the home advantage: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78, 233–249.
- Drukker, M., Kaplan, C., Feron, F., & Van Os, J. (2003).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eighbo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capital: A contextu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57(5), 825–841.
- Elliott, D. S. & Menard, S., Rankin, B., Elliot, A., Wilson, W. M., & Huzinga, D. (2006). *Good kids from bad neighborhoo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an, J., MacMillan, R., Wheaton, B. (1996). New kid in town: social capital and the life course effects of family migration in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68–385
- Harpham, T., Grant, E., &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Kawachi, I., Kim, D., Coutts., A., & Subramanian, S. V. (2004). Commentary: Reconciling the three accounts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82–690
- Kawachi, I., Subramanian, S. V., & Kim, D.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Springer Verlag, NY:LLC.
- Leventhal T., Brooks G. J. (2003). Children and youth in neighborhood context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1), 27–31.
- Lin, 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W. D., Pollack C. E., Williams D. R. (2011). Healthy homes and communities: putting the pieces together.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0(1), 48–57
- Mistry, K. B, Minkovitz, C. S., Riley, A. W., Johnson, S. B., Grason, H. A., Dubay, L. C., & Guyer, B.(2012). A New Framework for Childhood Health Promotion: The Role of Policies and Programs in Building Capacity and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9), 1688–1696.
- Parcel, T. L., Dufur, M. J., Zito, R. C. (2010).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828–846.
- Pettit, B., McLanahan, S.(2003). Residential mobility and children's social capital: evidence from an experi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84(3), 632–649.
- Putnam, R.(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Rankin, B. H., & Quane, J. M. (2002). Social contexts and urban adolescent outcomes: The interrelated effects of neighborhoods, families, and peers on African–American youth. *Social Problems*, 49(1), 79–100.
- Stevenson, H. C. (1998). Raising safe villages: Cultural–ec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4(1), 44–59.

- Tisenkopfs, T., Lace, I. and Mierina, I. (2008). Social capital, In: van der Ploeg, J. & Marsden, T. (eds) *Unfolding webs : 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Gorcum, The Netherlands, 87–111.
- White, M. J., & Glick, J. E. (2002).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Residential Segregation Revisited*.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Wickrama, K. A. S., & Noh, S. (2010). The long arm of community: The influence of childhood community contexts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894–910.
- Wu, Q., Palinkas, L. A., He, X. (2011). Social capital in promot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nese migrant children: interaction across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4), 421–442.
-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S.,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Youth's Adaptation to School: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youth's adapting to school. By utilizing the second year data of the 1st year of middle school panel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2010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successively on 2056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93 communities, a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First, what influence does family social capital exert on youth's adapting to schools? Second, what influence does community social capital exert on youth's adapting to schools?

First, 6.1% of the entire variables of school adaptation wer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communities, and the remaining 93.9% wer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among the individuals.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showed that the less neglect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less abuse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better the parents knew about their children with the greater interest, the better their children adapted themselves to school.

Thir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showed that the higher the community spirit the communities had, the better the young students in the communities adapted themselves to school.

Fourth, the results of examining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t the same time showed that, in relation to family social capital, the less neglect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less abuse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greater interest the parents had in the close friends of their children, the better the young students adapted themselves to school. And in relation to community social capital, the level of community spirit was still found to exert positive effects on young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Keywords: family social capital, community social capital, youth's school adaptat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14-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602-7 94330

978-89-7816-595-2 (세트)